

국내 漢字教育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내·외국인을 위한 효율적인 漢字教授法 중심으로

文 炳 淳
(경희대학교)

1. 문제 제기

한글과 한자는 우리말을 표현하는 양대 도구이다. 한글만으로 우리말을 표기하게 되면 어휘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한자만으로 표기하게 되면 언어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글과 한자의 적절한 並用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자어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 비록 표기 도구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자어가 동전의 양면처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한자는 한자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한자의 고유한 특징과 짜임을 알아야 한자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자는 외국인이 한국

1)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를 분석한 결과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한자어+외래어+고유어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항목 수의 69.1%가 한자어이다.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63쪽.

어를 학습하고 바르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한자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제 아무리 한자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교수법이 없다면 한자교육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심지어 한자에 대한 거부감까지 생기게 한다.

또한 최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코자 국내에서는 각 종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가 발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 어휘력 향상을 위해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관련된 한자교재 역시, 한국어 교육기관 및 개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비정규과정에 사용되고 있다.²⁾

이에 本稿는 현재 우리나라 한자교육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효율적이며 學理的인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鄙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한자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내의 한자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주된 이유로는 한자 字形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부수, 획수, 필순, 뜻, 음 등 전반적인 한자관련 지식을 단순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자교육은 학습자 개인이 암기해야 할 몫으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은 당연히 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한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한문과, 한문교육과, 국문과, 국어교육과, 한국어과 출신이지만,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는 한

2) 한자교육을 한국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 논문은 기 시행되고 있는 한자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작성되었기에, 한자교육의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자학(문자학) 전공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자교육이 개선되려면 우선 교사가 한자학 및 문자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전공학과와의 교육과정에 한자학(문자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목 배정이 시급한 현안이다.

1) 六書에 대한 맹신

‘六書’란 명칭은『周禮』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六書’의 條目은 西漢시대의 서적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條目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처음으로 ‘六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 사람은 東漢의 許慎이다. 그의 대표저서인『說文解字』는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字典이며, 許慎은 ‘六書’이론에 입각하여 小篆9353자를 540개 부수로 분류하고, 本義 및 字形을 분석, 설명하였다. 따라서 ‘六書’의 이론 및 ‘部首’의 개념은 許慎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漢字構形學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자는 秦왕조의 小篆이후, 漢代의 隸書로 바뀌면서 異字同形, 同字異形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³⁾ 따라서 小篆을 근거로 제시된 許慎의 六書 이론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楷書 字形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象形字는 사물의 外觀을 구체적으로 그린 문자로서(畫成其物, 隨體詰詘), 指事字, 會意字, 形聲字의 기초가 되는 造字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한자는 象形과 指事, 象形과 會意사이에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여, 象形을 다시 獨體象形, 合體象形, 省體象形, 變體象形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說文解字』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亦聲字’는 會意에도 속하고, 形聲에도 속하는 ‘會意兼形聲’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세 학자들은 六書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분류법인 ‘三書’를 제시하게 된다. 1930년대 唐蘭은 그의 저서『中國文字學』에서 ‘象形·象意·形聲’을 제시하였고, 1960년대 陳夢家是『殷墟卜辭綜述』에서 ‘象

3) 문자학에서는 ‘隸變’이란 학술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形·形聲·假借’를 주장하였고, 1980년대 裘錫圭는『文字學概要』에서 唐蘭과 陳夢家 주장의 장단점을 취합하여 ‘表意·形聲·假借’의 새로운 ‘三書說’을 선보이게 된다. 그 중 裘錫圭의『文字學概要』는 문자학 입문서로서 중국에서 가장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4)

이처럼 한자의 중주국인 중국에서는 六書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許慎의 六書 定義를 맹신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漢字를 六書로 분류하고, 학생들에게 암기를 강요하고 있다.

2) 부수 명칭의 혼란

한자교육에 있어서 부수 지도는 가장 근간이 되며, 효율적인 문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부수에 대한 이해여부는 한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해당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수 명칭은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없이 교재편찬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제각기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고등학교 한문 검정교과서에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교과서안의 상이한 부수 명칭 비교표5)

교과서 부수	교학사	동화사	민중서림	박영사	중앙사	지학사	태 성	청색
丶	불뚱(점) 주	불뚱 주(점)	불뚱 주(점)	불뚱 주(점)	불뚱 주(점)	불뚱 주(점)	점 주(점)	점 주
ノ	삐침(삐침) 별	삐침 별(삐침)	삐침 별(삐침)	삐침 별(삐침)	삐침 별(삐침)	삐침 별(삐침)	삐침 별(삐침)	삐침
ㄣ	머리 두	머리 두 (돼지해밀)	돼지해머리	머리 두 (돼지해밀)	머리 두 (돼지해밀)	머리 두 (돼지해밀)	머리 두 (돼지해밀)	돼지해머리
人(亻)	사람 (인변) 인	사람 인	사람 인 (인변)	사람 인 (인변)	사람 인 (인변)	사람 인 (인변)	사람 인 (인변)	사람 인
儿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어진사람 인

4) 이 밖에도 근래 다양한 ‘新六書’ 이론이 학계에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영희, 「구형학 이론으로 고찰한 중국어 기본 어휘표 한자」의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람.

5) 김혜연, 『중학교 漢字 부수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대안의 실제』, 19쪽, 부

冂	멀(멀경몸) 경	멀 경 (멀경 몸)	멀경몸	멀 경 (멀경몸)	멀 경 (멀경몸)	멀 경 (멀경몸)	먼데 경 (먼데경몸)	멀 경
彳	얼음 (이수변) 빙	얼음 빙 (이수변)	이수변	얼음 빙 (이수변)	얼음 빙 (이수변)	얼음 빙 (이수변)	얼음 빙 (이수변)	이수변
几	책상(안석) 꺀	안석 꺀	안석 꺀	안석 꺀 (책상 꺀)	안석 꺀 (책상 꺀)	안석 꺀 (책상 꺀)	안석 꺀 (책상 꺀)	안석 꺀
凵	입벌릴 감(위 터진입구)	입 벌릴 감(위 터진입구)	위터진입구	입 벌릴 감(위 터진입구)	입 벌릴 감(위 터진입구)	입 벌릴 감(위 터진입구)	입 벌릴 감(위 터진입구)	입벌릴 감
刀(刂)	칼 (선칼도)도	칼 도 (선칼도)	칼 도 (선칼도)	칼 도 (선칼도)	칼 도 (선칼도방)	칼도 (선칼도)	칼 도	칼 도
匚	감출(터진 에운답)혜	감출 혜 (터진에운답)	감출혜몸	감출 혜 (터진에운답)	감출 혜 (터진에운답)	감출혜 (터진에운답)	감출혜 (터진에운답)	감출 혜
冂(冂)	병부 (마디절) 절	병부 절	병부 절	병부 절 (마디절)	병부 절 (마디절)	병부 절 (마디절)	병부 절	병부 절
冂	굴바위 (민업호)업	굴바위 업 (민업호)	민업호	굴바위 업 (민업호)	굴바위 업 (민업호)	굴바위업 (민업호)	굴바위 업 (민업호)	민업호
ㄣ	사사 (마늘모)사	사사 사 (마늘 모)	마늘모	사사 사 (마늘 모)	사사 사 (마늘 모)	사사 사 (마늘 모)	사사로를 사 (마늘 모)	마늘 모
凵	에울 (큰입구) 위	에울 위 (큰입구)	큰입 구	에울 위 (큰입구)	에울 위 (큰입구)	에울 위 (큰입구)	에울 위 (큰입구)	에울 위
女	여자 녀	계집 녀	여자 녀	계집 녀	여자 녀	여자 녀	계집 녀	계집 녀
冂	집 (갓머리)면	집 면 (갓머리)	갓머리	집 면 (갓머리)	집 면 (갓머리)	집 면 (갓머리)	집 면 (갓머리)	집 면
山	메 산	메 산	메 산	되 산	메 산	메 산	되 산	메 산
ㄣ	내 (개미허리)친	내 친 (개미허리)	개미허리 (내 친)	내 친 (개미허리)	내 친 (개미허리)	개미허리 (내 친)	개미허리 (내 친)	개미허리
冂	집(업호)업	집 업(업호)	업호	집 업(업호)	집 업(업호)	집 업(업호)	집 업(업호)	집 업
ㄣ	길게 걸을 인	길게 걸을 인(민책받침)	민책받침	길게 걸을 인(민책받침)	길게 걸을 인(민책받침)	길게 걸을 인(민책받침)	길게 걸을 인(민책받침)	길게걸을인
ㄣ	터럭 (삐친석삼) 삼	터럭 삼 (삐친 석삼)	터럭 삼	터럭 삼 (삐친석삼)	터럭 삼 (삐친 석삼)	터럭 삼 (삐친 석삼)	터럭 삼 (삐친 석삼)	터럭 삼
彳	자축거릴 칙(중인변)	자축거릴 칙(두인변)	중인변	자축거릴 칙(중인변)	자축거릴 칙(두인변)	자축거릴 칙(중인변)	조금걸을 칙(중인변)	조금걸을칙
心	마음 (심방변) 심	마음 심	마음 심 (심방변)	마음 심 (심방변)	마음 심 (심방변)	마음 심 (심방변)	마음 심 (심방변)	마음 심
戶	지계 (문호)호	지계 호	지계 호	지계 호 (문호)	지계 호 (문호)	지계 호 (문호)	지계 호	지계 호
支(攴)	칠(등글월 문)복	칠 복 (등글월문)	등글월문	칠 복 (등글월문)	칠 복 (등글월문)	칠 복 (등글월문)	칠 복 (등글월문)	칠 복

斤	도끼 근	도끼 근 (날근방)	날 근	도끼 근 (날근변)	도끼 근 (날근변)	도끼 근 (날근변)	도끼 근 (날근)	날 근
无	없을 (이미기방) 무	없을 무 (이미기방)	이미기방	없을 무 (이미기방)	없을 무 (이미기방)	없을 무 (이미기방)	없을 무 (이미기방)	이미 기
歹(歹)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죽을사변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뼈양상할 알 (죽을사변)	죽을사 변
爻	칠 수 (갖은등글 월문)	몽동이 수 (갖은등글 월문)	갖은등글월 문	칠 수 (갖은등글 월문)	칠 수 (갖은등글 월문)	칠 수 (갖은등글 월문)	칠 수 (갖은등글 월문)	몽동이 수
氏	성 씨	성씨 씨	각시 씨	성씨 씨 (각시 씨)	성씨 씨 (각시 씨)	성씨 씨 (각시 씨)	성씨 씨	각시 씨
水 (水,水)	물(삼수변) 수	물수 (삼수변)	물 수 (삼수변)	물수 (삼수변)	물 수 (삼수변)	물 수 (삼수변)	물 수 (삼수변)	물 수
火 (火)	불 (연화발) 화	불 화	불 화 (연화발)	불 화	불 화 (연화발)	불 화	불 화	불 화
犬 (狗)	개(개사슴 록변)견	개 견 (개사슴록변)	개 견 (개사슴록변)	개견 (개사슴록변)	개 견 (개사슴록변)	개견 (개사슴록변)	개 견	개 견
玉 (王)	구슬 옥	구슬 옥	구슬 옥 (임금왕변)	구슬옥	구슬 옥 (임금왕)	구슬 옥 (임금왕)	구슬 옥	구슬 옥
疒	병들(병질 업)녁	병들 녀 (병질업)	병질업	병들 녀 (병질업)	병들 녀 (병질업)	병들 녀 (병질업)	병들 녀 (병질업)	병들어 기델녁
𠂔	걸을 (필발머리) 발	걸을 발 (필발머리)	필발머리	걸을 발 (필발머리)	걸을 발 (필발머리)	걸을 발 (필발머리)	걸을 발 (필발머리)	등질발
耒	쟁기 퇴	쟁기 퇴	쟁기 퇴	쟁기 퇴	쟁기 퇴	쟁기 퇴	쟁기 퇴	가래 퇴
肉 (月)	고기 (육달월)육	고기 육 (육달월)	고기 육 (육달월)	고기 육 (육달월변)	고기 육 (육달월변)	고기 육 (육달월변)	고기 육 (육달월변)	고기 육
臼	절구(확구) 구	절구 구	확 구	절구 구 (확구)	절구 구 (확 구)	절구 구	절구 구 (확 구)	절구 구
良	그칠 간	머무를 간 (페이름간)	페이름 간	그칠 간	그칠 간 (페이름간)	머무를 간 (페이름간)	그칠 간	페이름 간
艹	풀(초두)초	풀 초 (초두)	풀 초 (초두)	풀 초 (초두머리)	풀 초 (초두)	풀 초 (초두)	풀 초 (초두)	풀 초
疒	범의 문채 (범호) 호	범의 문채 호 (범호업)	범 호	범의 문채 호 (범호)	범의 문채 호 (범호)	범의 문채 호 (범호)	범의 문채 호 (범호)	범의 문채 호
虫	벌레 혜	벌레 혜 (벌레충)	벌레 충	버리지 혜	벌레 충	벌레 혜 (벌레충변)	벌레 혜 (벌레충변)	벌레혜
𠂔 (𠂔)	쉬엄쉬엄갈 착(책반침)	갈 착 (책반침)	책반침	쉬엄쉬엄갈 착(책반침)	쉬엄쉬엄갈 착(책반침)	쉬엄쉬엄갈 착(책반침)	쉬엄쉬엄갈 착(책반침)	쉬엄쉬엄갈 착
酉	닭 유	익을 유 (닭유)	닭 유	닭 유	닭 유	닭 유	닭 유	닭 유

長	긴 장	길 장	길 장	길 장	길 장	길 장	길 장	길 장
阜 (β)	언덕 (좌부변)부	언덕 부 (좌부방변)	언덕 부 (좌부 변)	언덕 부 (좌부 방)	언덕 부 (좌부방)	언덕 부 (좌부방)	언덕 부 (좌부방)	언덕 부
韋	가죽 위	다름가죽 위	다름가죽 위	다름 가죽 위	다름 가죽 위	다름 가죽 위	다름 가죽 위	가죽 위
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검을 흑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통일된 부수 명칭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각 종 字典의 ‘《》’ 부수 명칭을 비교해 보면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① 내 천 : 訓+音
- ② 개미허리 : 속칭
- ③ 개미허리 천 : 속칭+音
- ④ 개미허리변 천 : 속칭+위치표시어(偏旁)+音

上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종 교과서 및 字典에 사용된 부수명칭은 編者에 따라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명칭에 俗語나 古語를 사용하여 초급단계 학습자에게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부수가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6) 따라서 부수의 명칭은 字源에 근거해 본래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命名 방식은 ‘訓+音’ 또는 ‘訓+音+위치표시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대학교 한문교육 석사학위논문.

6) 현재 국내에는 표준화된 부수 명칭이 없다. 각 종 漢字 字典과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수 명칭은 대부분 일본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衆口難防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연석, 「부수속칭의 유래 試考」(『한문교육연구』 제22호)를 참고하기 바람.

3) 한자교재의 字源 설명 오류

최근 국내에는 한자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매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켜오고 있으며,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정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는 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국내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공교육에도 주시할 만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 각 시도 초등학교에서 27종의 한자교과서가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⁷⁾ 사교육 시장에서도 이에 부응코자, 한자교재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한자의 음, 뜻, 부수, 총 획수만을 제시하던 과거의 교재와는 달리 字源을 활용해 한자를 재미있게 풀이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공·사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검토해본 결과, 字源설명에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安’의 字源에 대해서 “여자가 집 안에 있어야 집안이 편안하다.” ‘行’의 字源에 대해서 “왼발이 자축거리고, 오른발이 자축거리며 걸어 다니다.” 라는 터무니없는 설명으로 학습자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한자에 대해서도 교재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病’字에 대한 각 종 한자교재의 설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A : 병들어(疒) 불을 밝혀(丙) 놓아야 할 정도니 병들 병.⁸⁾
- B : 병들어(疒) 베개 베고(一) 이불 덮고(冂) 사람(人)이 누우니 병 병.⁹⁾
- C : 아궁이의 불(丙)처럼 열이 나는 병(疒)이란 데서 병들다.¹⁰⁾
- D : 병(疒)든 사람이 남쪽(丙)의 열로 더욱 병들다.¹¹⁾

7) 한은수, 「初等學校 漢字 教材의 分析과 教授·學習 방법 고찰」, 『어문연구』 제33권 제3호, 489쪽.

8) 박원길, 『漢字암기박사』, 동양문고, 2008, 190쪽.

9) 강민, 김정미, 『漢字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09, 143쪽.

10) 이래현, 『꼬불꼬불 漢字 쉽게 끝내기』, 키출판사, 2002, 2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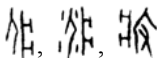
E : 음(音)으로 취한 丙에다 疒(침상에 누운 환자)를 넣어 병 병.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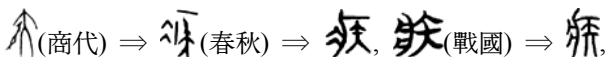
‘病’字는 의미 요소인 ‘疒’과 소리 요소인 ‘丙’으로 구성된 形聲字이다. 따라서 上例에서 소리 요소인 ‘丙’을 ‘불을 밝혀(丙)’, ‘베개 베고(一) 이불 덮고(冂) 사람(人)이 누우니’, ‘아궁이의 불(丙)’, ‘남쪽(丙)의 열’로 풀이하는 것은 字源을 무시한 근거 없는 설명이다.

‘疒’은 商代 甲骨文에 의하면, 사람이 아파 침대(牀)에 누워 있는 모습인데, 때로는 흐르는 피나 땀을 더하여 사실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西周 金文에 들어서면서 사람과 병상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의 ‘疒’이 되었으며 주로 질병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疾’은 갑골문에 의하면, 사람이 화살(矢)에 맞아 외상을 당한 모습인데, 春秋에 들어서면서 사람(大)이 ‘疒’으로 바뀌면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의미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疾’은 두 개의 의미 요소 ‘疒’과 ‘矢’이 합쳐진 會意字이며, ‘矢’이 소리 요소 역할도 겸하고 있어 會意兼形聲字이다.

‘病’은 의미 요소 ‘疒’에 소리 요소 ‘丙’을 첨부하여 만들어진 形聲字이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字形은 의미 요소 ‘疒’에 소리 요소 ‘方’을 사용한 戰國時代의 楚簡에 보이고 있다.¹³⁾ 그러나 秦의 小篆에서는 ‘丙’을 소리 요소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현재의 楷書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字形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疒 :  (商)

疾 : 

11) 한자능력검정시험연구원, 『한국어문교육연구회주관 한자능력검정시험 4급』,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125쪽.

12) 김미화, 『중학교 900자 한 번에 끝내자』, 중앙에듀북스, 2009, 232쪽.

13) 李守奎,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378쪽, 北京: 作家出版社, 2007.

疾(秦) ⇒ 疾(漢)

病 : 疒(戰國) ⇒ 疒(秦)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국내 초등학교 한자교재에 수록되어있는 字源 설명의 오류이다.¹⁴⁾

『초등학교 한자』, 재능교육, 1996, 68쪽

“민은 초목의 싹처럼 땅에 의지하여 사는 ‘백성’을 뜻합니다.”

『초등학교 한자』, 상서각, 2002, 92쪽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으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백성’이라는 뜻.”

『초등학교 한자』, 한국생활漢字교육연구회, 2002, 44쪽

“풀과 나무의 싹이 많이 나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

『초등 한자와 생활』, 학문사, 2003, 19쪽

“여자(母)들이 자식(一)을 낳아 기르면 그 수요가 점차 많아지니 한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재미있는 한자마당』, 창의마당연구소, 2003, 18, 44쪽

“토지에 의지하여 사는 많은 사람, 곧 ‘백성’의 뜻을 나타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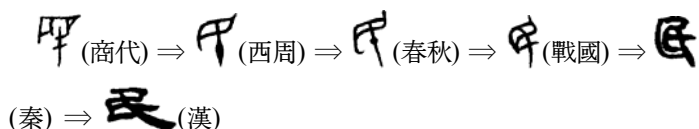
『재미있는 한자학습』, 21C 미래교육, 2005, 107쪽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백성’을 뜻하는 글자.”

‘民’字는 商代 甲骨文에 의하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한쪽 눈을 찔러 失明시켜 저항능력 없앤 뒤 노예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후에 노예제도가 없

14) 한은수, 『構成主義 字源 학습법을 활용한 漢字 教授-學習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08 44쪽.

어지면서 ‘평민, 백성’이란 의미로 확대 사용되었다.



이처럼 문자학 관점에서 學理的이며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한자교재에서는 근거 없는 字源 풀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비단 초등학교 한자교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문제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는 기초 및 초급 단계에서 일상생활 언어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량의 한자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한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한국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비한자권 외국인들이 한자권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어휘 습득 속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관련된 교수법에 대해서도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최근 몇 년간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관련된 연구와 출판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교육의 체계가 미비하여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절실한 상태이다. 그중 하나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자교육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한자교재의 개발이다.

2000년 이후, 한자교육을 위한 교재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출판되고는 있

으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교재들도 있으며, 아직 그 수나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논문과 교재는 “어떤 漢字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漢字語’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기초가 되는 “漢字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¹⁵⁾

1)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자교육 현황

현재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대학의 부속기관인 어학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각 기관의 한자교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漢字班이 있는 대학교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현황¹⁶⁾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선문대	연세대
운영 상황	1994년-현재, 특별반	1990-92년 정규반, 현재 선택반	1998년-현재, 특별반 말레이시아반 (매일1간)	1994년-현재, 특별반	1970년대-현재, 선택반
개설 목적	어휘력 향상	어휘력 향상	어휘력 향상과 대학 진학 공부	어휘력 향상과 대학 진학 공부	어휘력 향상
인원	10-20명	5-10명	5-10명	한자권: 30명 비한자권: 5-10명	20-30명
분리	분리수업	분리수업	비분리수업	분리수업	비분리수업
운영 방식	주 1회, 2시간 (10주 20시간)	주 2회 1시간씩 2시간(10주 20시간)	주 2회 1시간씩 (1학기 14시간) 말레이시아반: 매일 3-4자	주 1회 1시간 (10주 10시간)	주 3회 1시간씩 3시간, 선택반, (10주 30시간)

15)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1.3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정리되었기에 본稿에서는 생략한다.

16)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漢字어 교육 연구』, 29쪽,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교재	한자로 배우는 한국어(비한자권), 요모조모 한국읽기(한자권)	자체 교재 (총 200자 교육 목표)	Useful Chinese Characters	자체 교재, 시중 교재(혼자서도 쉽게 배우는 똑소리 漢字 1, 2)	漢字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1, 2
학습 단계	중급 3-4급	고급 6-7급	비한자권 : 중급 한자권 : 초/중/고	한자권: 초/중/고 비한자권: 중급	고급 5-6급
학습 방법	한자 쓰기와 관련된 한자어 연습, 문화교육	이는 한자어에서 한자추출 (그림카드, 쓰기)	한자가 들어간 표현을 찾아 써봄. 초급-한자 중급-한자어	한자 쓰기, 관련 한자어 익히기. 일본인 학습자는 한자음 읽기	한자익히기, (쓰기), 한자어 반복 읽기
학습 내용	읽기와 어휘 확장을 주로 함	5-8급의 교과서 학습 내용	초급기본 한자/한자어, 중급 활용도가 높은 한자/부수별 한자/고빈도 한자어	기초 한자와 한자어, 한국어와 일본어가 중복되는 한자어	한자와 한자어를 읽고 쓰기 연습, 게임, 활동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선문대, 연세대 5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자반이 선택반 혹은 특별반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한자권과 비한자권으로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경희대와 선문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자 및 한자어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¹⁷⁾

또한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교재는 대부분 종전의 방식을 답습한 한자쓰기, 한자읽기 등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은 반복된 쓰기, 읽기를 통한 암기식 학습을 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쉽게 지루해하고, 한자어 활용 능력 증진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한자 학습방법은 이처럼 암기식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자의 形, 音, 義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선 부수를 찾고, 총 획수 암기하고, 독음과 뜻을 숙지하는 등 매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학습 방법이다.

17)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漢字어 교육 연구』, 31쪽, 「해외 대학에서의 漢字어 교육 현황」,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8) 경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로 배우는 한국어1』 교재는 기존 교재와는 달리, 字源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학습방법으로 훈련된 서양의 학습자들에게는 유효하지 못한 교수법이다. 따라서 字源에 근거한 정확한 한자 字形의 분석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既 학습한 한자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의 한자교육 현황

한자어 교육은 한자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에서 한자 또는 한자교육론 과목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학부 세 곳과 대학원 세 곳뿐이다.¹⁹⁾ 한국어 교원의 한자 능력은 한국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자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정확한 한자를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에 사용되는 각 중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비한자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자 어휘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의 한자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91.35%가 한자 능력이 한자어 설명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의 92.26%가 “한자를 많이 아는 선생님이 한자어 어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²⁰⁾ 따라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예비 교원들의 한자 학습 및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수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한자교육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육용

19) 이하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과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음.

* 학부 : 경동대 한국어교원과(한국어 한자교육론), 부산외국어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사자성어와 한자, 기초한문, 한자어 학습과 한문독해), 우석대 한국어학과(한자교육론).

* 대학원 : 고려대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화교육학전공(한국어 한자교육론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한국어 한자교육론), 인하대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한국어 한자교육론). 대학원 과정에서 실제로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20) 이영희,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42쪽,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기초 한자의 선정', '한자 교육의 실태', '한자 교재의 개발 및 분석', '한자교육 방법론'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本稿는 '한자교육 방법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① 부수 명칭의 통일²¹⁾

한자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부수 명칭이다. 앞 장(2.2 부수 명칭의 혼란)에서 이미 거론하였듯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수 명칭은 대다수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 진 것이다. 게다가 각 종 교재 및 字典에 따라 그 명칭 또한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내국인은 물론 이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訓+音' 또는 '訓+音+위치표시어'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한자학습에 유리하다. 또한 향후 국가 수준의 부수 명칭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부 부수에 대해, 學理的이며 쉬운 용어로 대체한 例示이다.

부수자	舊 명칭	개선 명칭
亻	민갓머리	덧을 먹
儿	어진사람인	사람 인
几	안석 췌	책상 췌
凵	입 벌릴 감	구덩이 감
冂(凵)	병부 절	앉은 사람 절
匕	비수 비	숟가락 비/거꾸로 그린 사람 비
厶	사사 사, 마늘 사	사사로울 사
攴	뒤져 올 치	거꾸로 그린 발 치
攴	천천히 걸을 쇠	거꾸로 그린 발 치

21) 김언중(「漢字의 部首字와 그 호칭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문화연구』4집)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部首字 명칭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本稿에서 제시한 부수 명칭은 이 논문을 근거로 하였음을 밝힌다.

ㄱ	갓머리	집 면
ㄷ	개미허리 천	내 천
ㅈ	스물입발	두 손으로 들 공
ㄴ	길게 걸을 인, 민책반침	걸을 인
ㄹ	등글월문	칠 북
크(丘)	돼지머리 계, 튼가로왈	짐승머리 계
氏	각시 씨	성 씨
ㅍ	필발머리	두 발 발
췌(乚)	쉬엄쉬엄 갈 착, 갓은책반침	걸을 착

② 쉬운 대표訓 사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문교육용 기초 漢字 1,800字’는 2000년 12월30일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선정되었다. 그러나 선정된 1,800字의 漢字訓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한국어문화’와 ‘전통문화연구회’가 주관 이 되어 ‘교육한자 代表訓音’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이訓音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정된 1,800字는 내국인의 한문교육과 국어교육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²²⁾, 代表訓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漢字 교육에서 代表訓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

①訓이 해당 漢字의 음과 동일한 경우

各(각 각) 江(강 강) 功(공 공) 法(법 법) 病(병 병) 幅(폭 폭)
 妾(첩 첩)

② 다량의 同訓字

法(법 법) 規(법 규) 式(법 식) 典(법 전)

③ 한자어訓

22) 교육인적자원부, 「한문교육용 기초 漢字 1800자 조정백서」, 2001년.

講(강론할 강) 工(장인 공) 權(권세 권) 界(지경 계) 臺(돈대 대) 曆(책력 력)

④ 애매한 訓

架(시렁 가) 稿(벼짚 고) 祿(복 록) 武(호반 무) 發(필 발)
私(사사 사)


따라서 교재편찬 시, 가능한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유어로 代表 訓을 설정해야한다.


③ 字源을 활용한 학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준거한 국내 중고교 한문교과서는 이전에 비해 字源을 이용한 한자 학습을 많이 유도하고 있다. 이는 字源을 활용한, 字源에 근거한 한자 학습이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십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어휘력 증진에 목표를 둔 한자교육에서도 字源을 활용한 한자 학습은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字源을 활용한 한자 학습법의 예시이다.

〈例示 1〉






人(人) : 

人 :  (商)

疒 :  (商) ⇒  (春秋) ⇒  (戰國) ⇒  (秦) ⇒  (漢)

矢 :  (商) ⇒  (西周) ⇒  (戰國) ⇒  (秦) ⇒  (漢)

大 :  (商) ⇒  (西周) ⇒  (戰國) ⇒  (秦) ⇒  (漢)

疾 :  (商) ⇒  (春秋) ⇒  (戰國) ⇒  (秦) ⇒  (漢)

‘疒’은 사람이 아파서 침대(人)에 누워 있는 모습인데, 때로는 흐르는 피나 땀을 더하여 사실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사람과 병상이 하나로 합쳐져 지

금의 ‘疒’이 되었으며 주로 질병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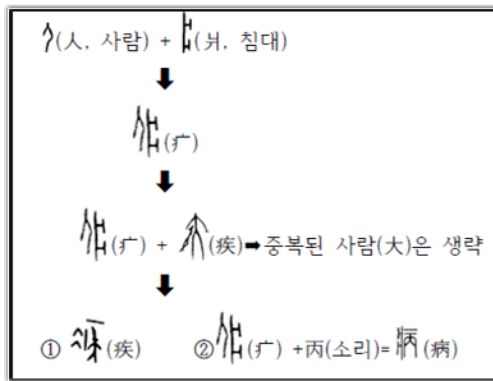
‘矢’는 ‘화살’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大’는 ‘정면을 향해 서있는 성인’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疾’은 사람이 화살(矢)에 맞아 외상을 당한 모습인데, 이후 사람(大)이 ‘疒’으로 바뀌면서 ‘화살에 맞아 부상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의미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疾’은 두 개의 의미 요소 ‘疒’과 ‘矢’이 합쳐진 會意字이며, ‘矢’이 소리 요소 역할도 겸하고 있어 會意兼形聲字이다.

丙 : 𠃉(商) ⇒ 丙(西周) ⇒ 𠃉(春秋) ⇒ 丙(秦)
 病 : 疒(秦)

‘病’은 의미 요소 ‘疒’에 소리 요소 ‘丙’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形聲字이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字形은 의미 요소 ‘疒’에 소리 요소 ‘方’을 사용한 戰國時代의 楚簡에 보이고 있다.²³⁾ 그러나 秦의 小篆에서 ‘丙’을 소리 요소로 사용한 것이 현재의 楷書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疒(장), 亾(인), 疒(녁), 大(대), 矢(시), 疾(질), 病(병)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字形의 변천과정을 圖式하면 다음과 같다.



23) 李守奎,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378쪽, 北京: 作家出版社, 2007.

〈例示 2〉

行 : 𠂔, 𠂔(商) ⇒ 𠂔(春秋) ⇒ 𠂔(戰國) ⇒ 𠂔(秦) ⇒ 行(漢)

‘行’은 ‘사거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甲骨文에서 이미 생략된 형태인 ‘𠂔’와 ‘𠂔’가 보이고 있는데, 각 각 현재의 ‘彳’과 ‘亍’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行’, ‘彳’, ‘亍’은 모두 ‘길거리’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行(행), 彳(척), 亍(축)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止 : 止, 止(商) ⇒ 止(西周) ⇒ 止(戰國) ⇒ 止(西漢) ⇒ 止(東漢)

辵(辵) : 辵(商) ⇒ 辵(西周) ⇒ 辵(春秋) ⇒ 辵(戰國) ⇒ 辵(漢)

‘止’는 ‘발’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彳’과 ‘止’가 합쳐진 것은 ‘길거리를 걷다’라는 ‘辵(辵)’이 된다. 이를 통해, 止(지), 辵(착), 辵(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隹 : 隹(商) ⇒ 隹(西周) ⇒ 隹(春秋) ⇒ 隹(戰國) ⇒ 隹(秦) ⇒ 隹(漢)

進 : 進(商) ⇒ 進(西周) ⇒ 進(戰國) ⇒ 進(秦) ⇒ 進(西漢) ⇒ 進(東漢)

‘隹’는 ‘새(조류)’를 형상화한 것이다.²⁴⁾ ‘隹’와 ‘辵’이 합쳐진 ‘進’은 ‘땅(길거리)에서 걷고 있는 새’를 표현한 것이다.²⁵⁾ 이를 통해, 隹(추), 鳥(조),

進(진)을 쉽게 학습할 수 있다.

4. 나오며

漢字는 배우기 어렵다! 漢字는 외우기 힘들다! 교육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국내의 한자 학습자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그러나 다년간 한자관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한 경험에 비춰본다면, 이러한 불평의 해결책은 한자교수법 또는 한자학습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기계적으로 배워왔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국내 교육정책의 영향으로, 한자교수법에 대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념적 논리에 휘둘려 교육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漢字는 이미 우리 언어의 일부이며, 우리말을 더욱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증가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정확한 우리말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어 예비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자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연중, 「漢字의 部首字와 그 호칭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문화연구』 4집.
김혜연, 『중학교 漢字 부수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새로운 대안의 실제』, 부산대학교

24) 이 字形은 ‘隹’와 ‘鳥’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된다. 동일한 의미이지만, ‘隹’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되고, ‘鳥’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된다.
25) 두발달린 조류는 步行 시, 前進만 가능하고 後進은 불가능하다.

석사학위논문, 2004.

- 李守奎,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 北京: 作家出版社, 2007.
-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제10권, 제1호.
- 한연석, 「부수속칭의 유래 試考」, 『한문교육연구』 제22호.
- _____, 「字源을 활용한 漢字교수학습방법 연구」, 『漢字漢文教育』 第17輯.
- 한은수, 「初等學校 漢字 教材의 分析과 教授·學習 方法 高찰」, 『어문연구』 제33권 제3호.
- _____, 『構成主義 字源 學習法을 活用한 漢字 教授·學習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홍영희, 「구형학 이론으로 고찰한 중국어 기본어휘표 漢字」, 『중국학연구』 제57집.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in Korea and How to Improve It:
Focusing on Effective Methods in Teaching Chinese
Characters for Korean and Foreign Students

Moon, Byung-Soon

Sino-Korean words make almost 70% of Korean words. Chinese Characters are very different from Hangeul (Korean alphabet system) in form and they are semantic symbols. Therefore Korean and foreign students are very likely to have difficulty in mastering the Sino-Korean characters.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blems of teaching Chinese characters to Koreans and foreigners in Korea, and proposing how to teach them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we first look into the realities of the national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and then suggest more effective instructions in teaching Chinese characters.

Key Words

한자어, 한자, 한자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자교육, 한국학생을 위한 한자교육
Sino-Korean words,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for
Korean students

논문접수일: 2013. 02. 10.

심사완료일: 2013. 03. 10.

게재확정일: 2013. 03. 15.